

## 서양의 자료분류법의 발달과정

### - 고대에서 해리스까지 -

김 명 옥\*

#### 목 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 론</li> <li>2. 서가분류와 서지분류</li> <li>3. 고 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 아슈르바니팔</li> <li>3.2 아리스토텔레스</li> <li>3.3 칼리마코스</li> </ol> </li> <li>4. 중 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 수도원도서관 분류법</li> <li>4.2 대학도서관 분류법</li> <li>4.3 마누티우스 분류법</li> </ol> </li> <li>5. 근 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 게스너 분류법</li> <li>5.2 몬타노 분류법</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4 노데 분류법</li> <li>5.5 프랑스 분류법</li> <li>5.6 라이프니찌 분류법</li> <li>5.7 마르탕 분류법</li> <li>5.8 다랑베르 분류법</li> <li>5.9 브뤼네 분류법</li> <li>5.10 제퍼슨 분류법</li> <li>5.11 미국의회도서관 분류법</li> <li>5.12 혼 분류법</li> <li>5.13 대영박물관 도서관 분류법</li> <li>5.14 에드워즈 분류법</li> <li>5.15 해리스 분류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결 론</li> </ol>

## 1. 서 론

인간은 고대로부터 인류의 문화적 소산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도서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대 이집트 및 히브리 등의 왕실과 사원도서관에서는 이미 도서관이 상당히 보존되어 있었으며, 수집된 자료를 아무렇게나 보존한 것이 아니고 특정영역별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점토판의 발굴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발굴되었던 점토판들은 아무렇게나 보존되었던 것이 아니고, 일정한 원

\* 숭의여자전문대학 도서관과 부교수

칙에 따라서 영역별로 보존되었던 것이 발굴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도서관업무 중에서 분류의 중요도는 고대 도서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으며, 중세에는 “분류되지 않는 장서는, 마치 하나의 군중을 군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한 가브리엘 노데(Gabriel Naude 1600-1653)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다.<sup>2)</sup> 또한 현대에 있어서도, 필립스(W. Howard Phillips)에 의하면 “분류는 도서관직의 기초이다 (Classification is the foundation of librarianship)”라고 분류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주장은 도서관의 정리업무 중에서 분류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도서관업무 중에서도 분류는 자료조직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컴퓨터에 의하여 자료검색을 하는 현대의 도서관에서는 주제명, 서명, 키워드 등 여러 방법에 의하여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이 발달하고 있기때문에 분류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인쇄매체가 계속 발간되고, 직접 서가에 접근하여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있는 한, 주제에 의한 자료 배열방법은 계속될 것이며, 분류도 역시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분류에는 도서관자료를 배열하기 위하여 고안한 서가분류와 서지자료의 분류를 위한 서지분류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지분류가 먼저 발달하였으며, 그 후에 서가분류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의 분류표는 두개의 분류를 모두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큰 공헌자는 에드워즈(Edward Edwards 1812-1886)와 해리스(William T. Harris 1835-1909)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의 문제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해리스까지 서양의 도서관에서 사용한 분류방법 및 그 발달과정을 고찰하고, 그 분류법들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대의 자료분류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각 분류표를 직접 수집하여 조사 연구하여야 하는데, 매우 한정된 문헌에 나타난 자료에 의해서 고찰하는 제약은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문에 인용된 분류법은 모두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1) Arthur Maltby,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5th ed. (London: Andre Deutsch, 1975), 110.

2) Alfred Hessel, 西洋圖書館史, 李春熙 譯.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3), 59.

3) W. Howard Phillips, *A Primer of Book Classification*, 5th ed. (Lond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 1961), 23.

## 2. 서지분류와 서가분류

서지분류란 서지와 목록작성을 위한 분류이다. 서지분류는 서지를 위한 지상분류(紙上分類)이며, 책자형목록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입을 배열하기 위한 분류이다. 그러므로 도서의 서가상 배열을 위한 분류와는 별개의 분류이기 때문에 분류기호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서지분류는 목록상의 분류이기 때문에 서가분류와 같은 물질적인 제약이 없고, 제2주제 이하를 동시에 기재하므로써 검색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가분류란 서가상에 도서를 배열하도록 고안한 분류로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분류이기 때문에 분류기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서가분류는 물질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의 도서에 하나의 분류기호만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2개의 분류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서지분류와 서가분류<sup>4)</sup>

분류의 종류	서가분류	서지분류
배열	서가상의 도서배열	분류목록의 기입 배열
해리스 이전	형태별, 수입순	주제의 체계순
해리스 이후	주제의 체계순	주제의 체계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지분류가 서가분류 보다 더 오래 되었으며, 분류목록은 서가상의 도서배열과는 관계없이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1870년 해리스는 서가상의 도서의 배열과 분류목록의 기입의 배열을 동일한 원리로하여 함께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발표하였다. 이 방법은 그 후 듀이(Melvil Dewey)의 분류표에 나타나 근대 도서관분류법으로 확립되었다. 현대의 대표적 분류표에는, 서가분류와 서지분류를 겸할 수 있는 것이 많다.<sup>5)</sup>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아 고대에서 19세기 후반까지는 서지분류시대라고 할 수 있

4) 木原通夫, 志保田務, 高鷲忠美, 資料組織法, 補訂第三版(東京:第一法規, 1985), 5. 참조.

5) 앞의 글, 6.

다. 해리스는 서지분류와 서가분류의 일원화를 시도하였고, 듀이는 그 방법을 확고하게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리스 보다 먼저 영국의 에드워즈가 1859년에 Outline of Proposed Scheme of Classification for a Town Library란 표제의 분류표를 발표하였기 때문에<sup>6)</sup> 서지분류와 서가분류의 일원화를 시도한 분류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리스의 분류법이 듀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해리스의 공헌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의 도서의 배열은 서지분류와 동일하게 배열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그 방법들은 (1)자료의 크기 (2)Orthodoxy (3)장정의 색깔 (4)자료의 가치, 형태(회귀 장정, 회귀본 등) (5)문학적 가치 (6)수입순 (7)출판년대순 (8)시대순(by period) (9)인기, 흥미, 이용 순 (10)출판사 (11)저자와 서명 (12)언어 (13) 출판지 (14)주제-문제의 지리적 위치 (15)주제명 (16) 체계적인 주제 (17)표현형식 (18)이용자의 나이 등에 의하여 배열되었다.<sup>7)</sup>

현대의 주요 도서분류표는 서가분류표이며, 도서관의 자료를 배열하기 위하여 고안되었기 때문에 분류기호가 있고, 그것이 도서배열의 기초가 되고 있다. 또한 현대분류표는 서지분류와 서가분류에 겸하여 이용되고 있다.

### 3. 고 대

#### 3.1 아슈르바니팔 (Assurbanipal, B.C.700년경)

구약성서에도 나오는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Nineveh)에는 아슈르바니팔 왕의 궁전에 왕실도서관이 있었다. 이 왕실도서관은 1850년 영국의 레이야드 경(Sir Austen Henry Layard 1817-1897)이 티그리스강 유역의 니네베에서 발굴하였다. 니네베에는 아시리아왕 최성기의 아슈르바니팔 왕의 궁전이 있었던 곳이다.

이 왕실 도서관 분류법은 발굴된 것들 중 최고(最古)의 서양 분류법으로서, 왕실 문고의 기록이 25개 점토판에 새겨져 있었다. 그 중 14개는 땅(地)에 관한 저술의

6) 加藤宗厚, 圖書分類法要説, 改訂増補版 (東京: 理想社, 1962), 79.

7) W. Howard Phillips, op cit., 21-22.

목록이고, 나머지 11개는 하늘(天)에 관한 저술의 목록이었으며, 각각의 류는 세분되어 있었다.” 즉, 유적지에서 설형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이 25,000점 이상이 발굴되었고, 그 중에 점토판의 목록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주제가 있었고 또한 세구분되어 있었다.”

- |       |        |       |        |        |
|-------|--------|-------|--------|--------|
| (1)문법 | (2)역사  | (3)법률 | (4)자연사 | (5)지리  |
| (6)수학 | (7)천문학 | (8)주술 | (9)종교  | (10)전설 |

이와 같은 점토판에는 자료의 제목에 대한 기입과 그 점토판들의 수효와 종류 그리고 시작하는 문장의 첫 단어와 중요한 세목과, 또한 소장번호와 분류번호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고 한다.<sup>10)</sup>

그러나 이 분류는 검색을 위하기 보다도, 수집한 것을 재산으로 하기 위한 분류라고도 추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고대 왕실의 도서관은 자료의 보관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적인 성격보다는 왕실의 문서를 보존하는 문서관적인 역할을 했으리라고 유추되기 때문이다.

### 3. 2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384-322 B.C.)

회랍도서관의 본격적인 발달은 위대한 두 지성인 플라토(Plato 427?-347? B.C.)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활동이 시작되던 시대부터 비롯하였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헌 전반에 걸쳐 그 수집의 완전을 기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지식 전 분야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세우는데 주력하였다.<sup>11)</sup>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정한 체계로 도서를 배열한 최초의 사람으로, 그 체계는 후에 알렉산드리아의 프트레미에 의하여 채택되었다고 한다.<sup>12)</sup> 仙田政雄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그는 후에 에집트 왕에게 도서관경영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진다고 하

8) 點澤修, 芦屋清, 資料分類法 (東京: 東京書籍, 1984), 34.

9) 今まどり 外, 資料分類法 及び演習 (東京: 樹村房, 1986), 15.

10) 金世翊, 圖書-印刷-圖書館史. (서울: 종로서적, 1982), 62.

11) Alfred Hessel, op. cit., 12.

12) Clark, J.W. *The Care of Books*,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Arthur Maltby, Ibid, 재인용)

였다<sup>13)</sup>. 그러나 그리스와 로마의 도서관에서는 분류하였을 것이 틀림 없지만, 기록매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sup>14)</sup>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도 도서관이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증명할 수 있는 기록매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그 시대의 도서관 및 분류법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매체가 현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자들을 양성하는 곳에는 분명히 도서를 보존하는 도서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그 이전의 점토판이 주제별로 발굴된 것을 볼 때, 그리고 위대한 희랍문화의 유산을 고려할 때 그의 시대에도 도서를 분류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3.3 칼리마코스 (Callimachus, 305?-240? B.C.)

칼리마코스는 학자이며 시인이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설립계획은 에집트 디아도코이 왕조(Diadochian Dynasty)의 프톨레미 소터 1세(Ptolemy Soter)에 의해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그 계획은 그의 아들 프톨레미의 필라델프스(Ptolemy Philadelphus, 309-246 B.C.) 때에 와서 이루어 졌다. 도서관은 두 구역에 나누어져 있었는데, 큰 것은 알렉산드리아 시 브루케움(Brucheum) 구역에 있는 왕궁에, 작은 것은 세라피스 사원(Serapis Temple)안에 있었다. 전자가 기원전 47년에 시이저(Caesar)의 알렉산드리아 침입으로 파괴된 이후는 사실상 세라페움이 알렉산드리아 시의 도서관이 되었다.<sup>15)</sup>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그 후 수백년간 번창하였으며, 50만권 내지 70만권의 파피루스를 소장하였다.<sup>16)</sup>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초대관장은 대 문법가인 에페수스의 제노도투스(Zenodotus of Ephesus)였는데, 그는 서고의 정리를 시작하였고, 한편 호머 작품의 교정판을 비롯한 희랍문학의 편찬에 착수 하였다. 그의 후계자 가운데는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 275?-194? B.C.),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of Byzantium, 257?-180? B.C.)가 있으며, 이들 역대 관장 중에서도 큐레네의 칼리마

13) 仙田正雄, 圖書分類と 圖書記號, (東京: 圖書房, 1956), 34.

14) Margaret M. Herdman, *Classification: an Introductory Manual*, 2nd ed. (Chicago: ALA, 1947), 15.

15) Alfred, Hessel, op. cit., 10.

16) 今まど子外, 앞의 글, 16.

크스(Calimachus of Cyrene, 305?-240? B.C.)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17)</sup> 칼리마크스는 초대 관장이라고 하기도 하고<sup>18)</sup>,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사서가 아니라고도 하고,<sup>19)</sup> 혹은 그가 일종의 하급관리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sup>20)</sup> 업적으로 보아 관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칼리마크스는 학문분야에 있어서 저명한 작자 및 저작목록인 피나케스(Pinakes) 목록을 120권으로 편찬하였다. 현재는 피나케스목록이 멸실되어 있지만, 파피루스의 단편에 남아 있다. 즉, 목록이 현존하지 않지만 후의 자료에 기록되어, 남아 있는 최초의 분류법이다.<sup>21)</sup> 그러나 이 목록이 알렉산드리아의 중요한 도서관들의 종합목록이었는지<sup>22)</sup>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장서목록인지<sup>23)</sup> 그 때 있었던 파피루스의 서지인지 판명할 수 없지만, 기입이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는 분류목록이었다.

이 목록은 전체를 시부(詩部)와 산문부로 나누고, 각 부를 다시 주제별로 구분하였다. 각 주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각 저자에 대해서는 간단한 전기와 그들의 저작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각 저작에 대해서는 서명하고 그 저작의 첫 구절과 그리고 행수를 열거하였다. 이 피나케스목록은 오래동안 표준 목록으로서 평가를 받아 왔고, 그 후 모든 고문헌서지의 기초가 되었다.<sup>24)</sup>

이 분류법은 시문서와 산문서에 각각 6강(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5)</sup>

현재 피나케스 목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편찬한 목록이 무엇을 위한 목록이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당시 파피루스를 대상으로 한 분류목록을 작성하였고, 제1류 시문서는 문학형식, 제2류 산문서는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 주제에서 저자명이나 년대순으로 배열한 것은 분류기술이 발달되었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단편으로나마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록

17) Alfred Hessel, op. cit., 13.

18) 點澤修, 芦屋清, 앞의 글, 34.

19) James Westfall Thompson, *Ancient Libra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40, 78. (Margaret M. Herdman, loc. cit. 재인용)

20) Alfred Hessel, loc. cit.

21) Margaret M. Herman, Ibid.

22) Ibid.

23) 丸山昭二郎, 岡田靖, 澁谷嘉彦, 主題組織法概論: 情報社會の分類 (東京: 紀伊國屋, 1986), 22.

24) Alfred Hessel, loc. cit.

25) 丸山昭二郎, 岡田靖, 澁谷嘉彦, 앞의 글, 23.

이므로, 고대의 분류방법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피나케스 목록의 분류체계

##### 제1류 시문서

- 제1강 서사편 목록
- 제2강 비가조(悲歌調)편 목록
- 제3강 단가조편 목록
- 제4강 가요조편 목록
- 제5강 비극편 목록
- 제6강 희극편 목록

##### 제2류 산문서

- 제1강 법률편 목록
- 제2강 철학편 목록
- 제3강 수사학편 목록
- 제4강 사학편 목록
- 제5강 의학편 목록
- 제6강 잡편 목록

## 4. 중 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후 중세에는 특이한 도서관이 없었다. 종래에는 한 곳에 집중되어 대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던 것이 분산되어 귀족이나 왕후의 보물적 재산이 되어, 규모가 적어져서 큰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에도 수도원 도서관, 대학도서관이 있었다.

### 4.1 수도원도서관 분류법

수도원 도서관 시대에는 파피루스 대신 양피지가 사용되었고, 규모가 적어서 상세한 분류나 목록이 필요 없었다. 100책 이상의 장서를 가진 곳도 적었고, 최고도 700책 이하였다고 한다.<sup>26)</sup>

중세 수도원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몇개의 류로 도서를 분류하고, 크기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서가에 배열하였다. 때로 도서는 류 내에서 저자명의 알파벳순서로 배열되었다. 예수회(Jesuits)에서는 신도들의 저서와 이교도의 저서로 2대별로 분류

26) 丸山昭二郎, 岡田精, 澁谷加彦, 앞의 글, 24.



하였다.<sup>27)</sup> 또한 중세의 사원문고의 승원서가번호법(collegiate press-making system)과 함께 여러가지의 배가법이 있었다.<sup>28)</sup> 주된 것은 성 리퀴에르(St. Riquier) 승원문고식(성서 및 주석, 교부, 문법가, 역사가, 예배식용 도서)과 성 에머람(St. Emmeram)승원문고식(성서 및 주석, 신학, 역사, 법학, 미술, 잡, 예배식용 도서) 배가법이 있었다. 수도원도서관에는 이러한 항목에 알파벳이나 로마 숫자의 기호가 부여되어 있었다. 기호는 서가의 기호도 있고, 서가의 측면에 배가순으로 서명을 리스트한 목록이 붙어 있었다.<sup>29)</sup>

또한 후기 카롤링가 시대에는 필사승(Armarius or librarius)의 업무의 하나는 도서를 분류, 목록하는 것이었는데, 카롤링가 시대의 큰 도서관의 목록들에는 거의 같은 종류의 사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 주제별로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각 목록이 거의 통일 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맨 처음에 성서류, 다음에 초기 교부와 후기 성직자들의 저작순으로 하되 이를 다시 저자명순으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기타 종교 도서와 고대 이교 문헌을 포함한 비 종교 도서를 일정한 주제에 따라 구분하였다. 도서의 배열은 일정한 체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러므로 카롤링가 시대의 도서목록은 일종의 서가목록이라고 볼 수 있다.<sup>30)</sup>

10세기 후기 카롤링가시대의 로쉬(Lorsch)수도원도서관은 기도서(Liturgical works), 성서, 역사 및 지리책, 신학 및 교부의 저서(theological and patristic writings), 성인(saints), 시인 및 고전작가의 생애 순으로 도서를 배열하였다.

1158년, 프뤼페니그(Prufening)수도원 목록은 옛 교부(old fathers), 독일성직자, 프랑스의 신학자의 저서를 년대순으로 배열하였다.<sup>31)</sup>

중세의 도서관이 발전함에 따라 도서의 배열은 더욱 표준화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개의 류로 분류되었다.<sup>32)</sup>

비종교적인 문헌이 소장된 곳에서는 7개의 공인된 문예 즉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으로 세분이 이루어졌다.

27) Margaret M. Herdman, op. cit., 16.

28) 點澤修, 芦屋清, 앞의 글, 34.

29) 今まど子 外, 앞의 글, 17.

30) Alfred Hessel, op. cit., 33.

31) 鄭駟謨, 文獻分類論 (서울: 九美貿易 出版部, 1991), 116.

32) Margaret M. Herdman, op. cit., 16.

15세기 말경 바젤(Basel)에 있던 St. Margaret의 Carthusian 수도원 도서관 장서는 회귀본, 평수도사들이 이용하기 위한 독일어로 된 저작 및 설교나 성도전과 같은 교회의 저작으로 구분되었다.<sup>33)</sup>

- (1)문서(Archives), (2)성경 및 주석서(Scriptural Texts and Commentaries),
- (3)교회법(Constitutions), (4)종교회의(Council and Synodal Proceedings),
- (5)설교 및 사도 서한(Homilies and Epostles of the Fathers),
- (6)성구집 (Lectionaries), (7)성인전 및 순교자(Legends and Martyrdom).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초기의 수도원 도서관은 규모가 크지 않고, 이용자가 한정되어서 복잡한 형태의 분류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개 종교적인 자료와 비종교적인 자료로 대별되어 각 수도원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점차 수도원 도서관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반화된 분류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카롤링가 시대의 목록은 서지목록이 아니라 도서를 서가에 배열한 서가목록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 4. 2 대학도서관 분류법

중세 후기, 대학에 도서관이 설립되었다. 당시의 대학은 신학, 법학, 의학의 상급 학부와 자유 7과를 가르치는 예비적인 학부가 있었다. 자유 7과는 교양과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법, 논리학, 수사학(修辭學)의 3과(trivium)와 산수, 기하, 천문, 음악의 4과(quadrivium)를 의미한다. 도서관에서는 여기에 속하는 10항목으로 도서의 분류배가를 행하였다.<sup>34)</sup> 초기의 대학도서관의 조직은 수도원 도서관의 조직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도서를 사슬로 묶어 사용하게 하였는데, 책상과 서가, 필사본에는 문자나 숫자를 표시하고, 그 밖에 학부별 표시를 각각 다른 색으로 구별하기도 하였다. 장서 목록은 일종의 서가목록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알파벳순 색인

33) Margeret M. Herdman, loc. cit.

34) 今まど子 外, 앞의 글, 18.

이 추가 되기도 하였다.<sup>35)</sup>

초기의 대학도서관은 장서 수가 적었기 때문에 수도원도서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중세 도서관의 발전에 공헌하였고, 분류는 개설된 교과과정에 따라서 간단한 방법으로 분류한 것을 알 수 있다.

르네상스를 지나 15세기 중엽에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가 활판인쇄를 발명하여 출판 및 도서관계에 큰 영향을 끼쳐서 출판도서수가 많아짐에 따라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분류가 시도되었을 것이다.

#### 4.3 마누티우스 분류법 (Aldus Manutius, 1447-1515)

베네치아의 마누티우스는 이태릭체 활자를 만드는 인쇄업자로서, 그리스 고전총서를 발행하였다.

1498년에 마누티우스는 다음과 같은 분류법을 작성 하였다고 한다.<sup>36)</sup>

1. 문법(Grammatica)    2. 시(Poetica)    3. 논리학(Logica)
4. 철학(Philosophia)    5. 성서(Sacra Scriptura)

이 분류법의 내력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그가 발행한 그리스 고전총서나 그 밖의 다른 서지의 분류에 적용했을 것이다. 중세 후기에 나타난 분류법이므로 의의가 있으며, 그 후의 분류법에도 영향을 끼쳐서, 다른 여러 분류법들과 함께 브뤼네의 분류법의 기초가 되었다.

## 5. 근 세

### 5.1 게스너 분류법 (Konrad Gesner, 1515?-1565)

35) 鄭曉護, 吳東根, 圖書館文化史,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1991), 66.

36) 加藤宗厚, 圖書分類法要設, 改訂増補版 (東京: 理想社, 1962), 76.

게스너는 근세 초기의 문예부흥시의 독일계 스위스인 박물학자로서 철학, 의학, 박물학 분야에서 당시의 최고 권위자였다. 독일은 당시 도서교역의 중심지였으며,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목록(Frankfurter Messkatalog)은 전 유럽의 문헌을 가장 완전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의 서지문화의 발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스너는 1545년-1555년에 세계서지 (Bibliotheca Universalis)를 완성하였다. 이것은 게스너의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분류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 문헌의 도서 목록이었다. 제1책은 1545년에 발행 되었는데, 631페이지의 폴리오 판으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된 약 1만 2천책이 열거 되어 있다. 열거 방법은 우선 간단한 인명 리스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저자의 세례명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였다. 제2책은 1548년에 발행되었는데, 체계적인 색인으로 21개의 표제로 정리되고 있다. 이 분류 시스템은 게스너의 독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중세의 자유교과(liberal arts)의 7구분을 깨뜨린 것이다. 1555년에는 보유(Appendix bibliothecae)를 출판하였는데, 여기에는 3,000권의 저작이 더 추가되었다.<sup>37)</sup> 이 목록은 그의 독창적인 원칙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최초의 서지학적 목록, 철학적인 기초를 가진 목록, 학문을 계층화하여 체계화한 목록, 학문의 분류를 서지기입의 배열에 응용한 최초의 서지분류법이라고 높이 평가받고 있다.

게스너가 창안한 21개의 주제 내용은 <표 2>와 같다.<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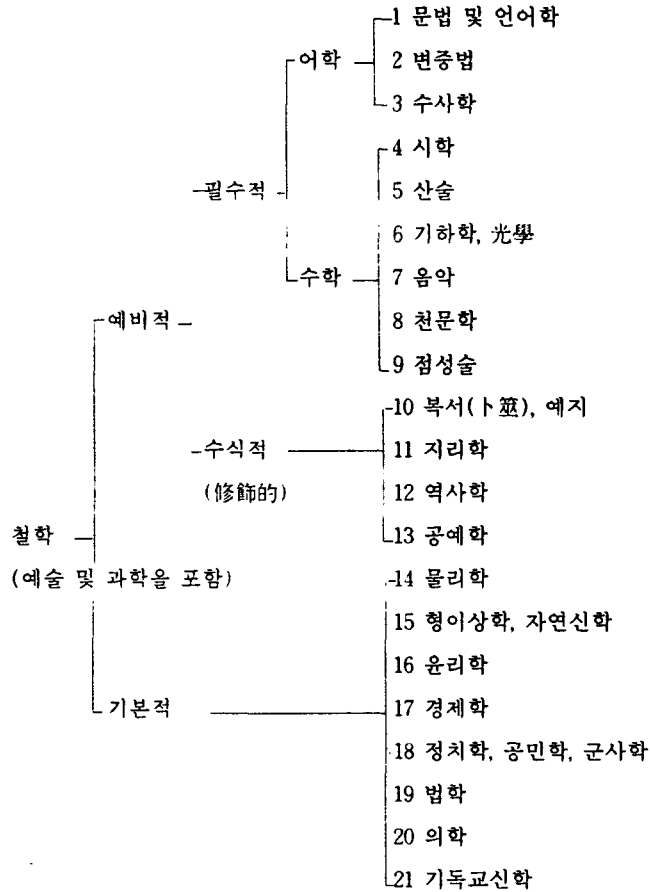
이와 같이 게스너는 모든 지식을 학문적인 특성에 따라서 계층적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그의 주제배열은 마누티우스의 분류법과 유사하다. 유럽의 기독교적인 문화 발달과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신학을 21번째로 가장 늦게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모든 지식을 학문적 성격에 따라 분류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게스너의 21개 주제분류법은 유럽에 큰 영향을 끼쳐서, 불란서의 국립도서관은 1810년까지 사용하였다. 또한 게스너분류법은 저자, 서명, 분류체계 및 주제명으로 찾을 수 있는 최초의 서지로서 다면적인 접근법이다. 그에 의하여 도입된 이

37) 鄭騷謀, 吳東根, 앞의 글, 89.

38) 加藤宗厚, 앞의 글, 75.

〈표 2〉 게스너의 분류법



서지작성 기술은 현재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정보 검색시스템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다.”

39) 최성진, 도서관학 동론, 중보관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8), 261.

## 5. 2 몬타노 분류법 (Montano)

현재 알려져 있는 바로는, 필립 2세(Philip II, 1527-1598)의 궁전건축가 에레라(Juan Bautista de Herrera, 1530?-1597)가 벽서가에 책을 꽂을 수 있도록 철저히 실행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왕은 친히 도서관을 감독하여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고, 정치가 멘도자(Diego Hurtado de Mendoza, 1503?-1575)의 기증으로 장서는 더욱 많은 증가를 보게 되었다.

사서 몬타노는 이례적인 도서분류원칙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도서를 언어별로 나눈 다음 사본과 인쇄본으로 구분하고, 끝으로 이를 다시 64부분의 주제별로 분류하였다.<sup>40)</sup>

이와 같이 분류 주제가 늘어 난 것은 인쇄본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의 도서배열 방법보다 더 세밀한 분류가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서지학자 및 도서관인들의 끊임없는 분류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 5. 3 노데 분류법 (Gabriel Naude, 1600-1650)

프랑스는 중세 이후, 우수한 서지학자가 출판한 서지가 성행한 국가로서 수 많은 목록류가 출판되었다. 그 중 노데의 분류표는 주목을 받는 분류표였다.

노데는 프랑스 정치가 마자랑 추기경(Jules Mazarin, 1602-1661)이 설립한 도서관의 관장으로서 도서관 운영에 흥미를 갖고 있었는데, 후에 총 장서수가 40,000여 권에 달하였다.

노데는 1643년에 도서관 운용지침(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eque)을 발표 하였다.<sup>41)</sup> 이 책은 도서관 역사상 최초의 개론서로서 도서관 사상과 도서관 운영의 일반적 원리를 다루었다. 즉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사서직 준비교육, 문헌의 선택, 수집, 정리, 배열, 장정, 문헌이용의 의의, 시설, 비품 등 이론과 실제의 주제들

40) Alfred Hessel, op. cit., 59.

41) 노데의 책의 발행년도는 Hessel은 1627년, Maltby는 1643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Maltby와 仙田政雄의 의견을 따랐다.

이 종합적으로 다루어 졌는데,<sup>42)</sup> 노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12분야의 분류법은 다음과 같다.<sup>43)</sup>

- (1)신학 (2)의학 (3)서지학 (4)년대학 (5)지리학 (6)역사 (7)군사학 (8)법학  
(9)종교회의 및 교회법(Council and Canon Law) (10)철학 (11)정치학 (12)문학

노데는 신학을 모든 주제 보다 상위에 배치하였으며, 가능하면 관련이 있는 분야는 전후에서 배열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는 검색도구로서 목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제목록의 비치를 권장하고, 개가제, 관외대출, 정보봉사 등 현대도서관의 방법들에 대한 필요성을 그 때 인식하고 역설하였다. 그의 책은 그 후 1661년 영국에서, 1668년 독일에서, 1903년 미국에서 번역되어 도서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노데의 분류법은 그 후 프랑스 분류법(French System)의 기초가 되었고, 브뤼네(Jaques Charles Brunet)의 분류에 큰 영향을 끼쳤다.

#### 5. 4 프랑스 분류법 (French System)

1605년에 발표된, 인류의 모든 지식에 관한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분류는 지식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그것은 전 지식분야에 대하여 너무도 독단적인 분류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여러 분류체계가 시도되었고, 그 중 몇가지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분류체계는 실제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프랑스 분류법(French system)으로, 파리서적상분류법(Paris Bookseller's System)이라고도 한다. 이 분류표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Jean Garnier(1678), Gabriel Martin(1740), Ismael Bouillaud(1678) 등의 설이 있지만 에드워즈(Edward Edwards)는 부이요(Ismael Bouillaud 1605-1698)가 가장 확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몇 전거에서는 마르탱( Gabriel Martin, 1679-1761)이 편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1705-1761년 사이에 많은 도

42) 최성진, 앞의 글, 263-64.

43) Margaret M. Herdman, *op. cit.*, 17.

서관목록을 편찬하였으며, 그 목록들은 파리서적상 분류법과 동일한 개요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프랑스 분류법은 5분법으로, 분류의 주류는 다음과 같다."<sup>44</sup>

(1)신학 (2)법학 (3)역사 (4)철학 (5)문학

이 분류표는 동시대의 많은 서지학자들이 사용하였다. 그 후 Marchand, de Bure, Rochell 등에 의하여 점차 개정, 변화되어 브뤼네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이것이 곧 프랑스분류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베이컨이 학문의 분류를 체계화하였지만, 프랑스의 서적상 및 서지학자들은 독자적인 분류법을 개발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 5. 5 라이프니쯔 분류법 (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

라이프니쯔는 학자인 동시에 외교가였으며, 도서관계에 크게 영향을 준 위대한 도서관 관리자였다. 1676년 라이프니쯔는 하노버(Hanover)의 관장 겸 수사관(修史官)으로 초빙된 바 있었고, 15년 뒤에는 볼펜뷔텔(Wolfenbüttele)도서관장으로 취임하였다. 두 도서관은 장서 증가에 있어서 그의 힘을 많이 입었으며, 특히 볼펜뷔텔 도서관에서는 처음으로 알파벳순 목록을 창간하였다.

분류와 목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실무상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의 사서들과 같이 그도 또한 도서분류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체계 즉 교과목과 학문의 전문성에 근거한 지식분류를 택하였다. 그는 알파벳순 목록에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편 출판년도에 의한 년대순 배열과 표목어에 따라서 배열한 주제색인(indices materiaram)을 특히 권장하였다.<sup>45</sup> 또한 그는 노데의 12분류법을 10부분으로 재구성 하여 독자적인 분류법을 개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6</sup>

(1)신학 (2)법률학 (3)의학 (4)철학 (5)수학 (6)물리학 (7)언어학 및 문학  
(8)문화사 (9)문헌사 및 서지학 (10)총서 및 잡지

44) Margaret M. Herdman, Ibid., 17: 加藤宗厚, 앞의 글, 76.

45) Alfred Hessel, op. cit., 73-74.

46) 최성진, 앞의 글,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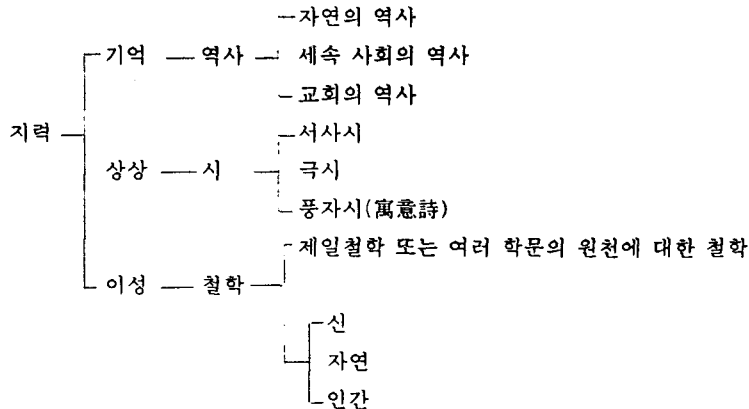
라이프니츠의 분류는 게스너, 베이콘, 노데의 분류에 영향을 받았으며, 노데의 12주제 중에서 유사한 것은 통합하고, 그 배열 순서를 바꾸어 실질적인 학문을 상위에 두었다.

### 5.6 다랑베르 분류법 (Jean Le Rond d'Alembert, 1717-1783)

베이콘의 학문분류는 150년 후 불란서에서 디드로(Diderot)와 다랑베르가 출판한 백과전서(Encyclopedie: ou dictionnaire raisonne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etiers, 1751-1765)의 배열에 사용되었다.<sup>47)</sup> 백과전서는 18세기 당시의 최신지식 특히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을 망라하여, 학문의 관련을 표시하고,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 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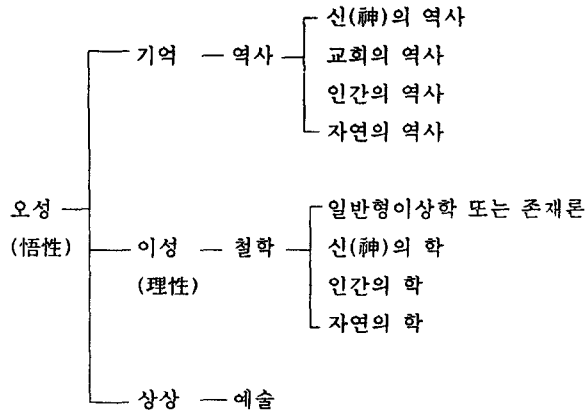
권두에 그가 전개한 인간지식의 계통도가 있었는데, 베이콘의 학문분류와 그의 분류의 내용은 <표 3>, <표 4>와 같다.<sup>48)</sup>

<표 3> 베이콘의 학문 분류



47) Arthur Maltby, op. cit., 117.

48) 今まどい外, 앞의 글, 22.

〈표 4〉 다랑베르의 인간지식의 계통도 (大綱表)<sup>49)</sup>

〈표3〉,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랑베르는 베이컨의 사학, 시학, 이학 순서를 사학, 철학, 예술 순서로 배열하였으며,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오성을 기억, 이성, 상상으로 배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열의 백과전서는 많은 구매자를 얻었기에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1605년에 발표된 베이컨의 학문분류 체계는, 18세기의 백과전서를 통하여 구미의 지식인의 상식이 되었다고 생각 된다. 다랑베르의 분류법은 후에 미국의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이 개인장서를 정리하는데 이용되었다.<sup>50)</sup>

따라서 발표 후에 프랑스에서 비판받던 베이컨의 학문분류는 디드로와 다랑베르에 의하여 백과전서의 분류에 쓰여짐으로써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도서관 분류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 5. 7 브뤼네 분류법 (Jacques-Charles Brunet, 1780-1867)

브뤼네는 불란서 서적상이면서 서지학자였다.

그 당시에는 이태릭체 활자를 만드는 인쇄업자로서 그리스 고전총서를 발행한 베

49) Diderot, D'Alembert 編, 百科全書, 雙原武夫 譯編 (東京:岩波書店, 1971), 370-71.

50) 今まど「外, 앞의 글, 23.

네치아의 마누티우스(Aldus Manutius, 1447-1515), 프랑스의 추기경 마젤란의 장서를 관리한 사서 노데, 성직자 가르니에(Jean Garnier, 1612-1681), 부이요(Ismael Bouilloud, 1605-1698), 마르땅, 게스너 등이 여러 분류법을 고안하였다.

브뤼네는 1810년 이들 분류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법을 고안하였다.<sup>51)</sup> 즉 그는 오랜 기간을 거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개정 전개되었던 프랑스 분류법(파리서적상 분류법)을 대성한 것이다. 브뤼네가 편찬 발행한 서지 “서적상과 도서애호가를 위한 매뉴얼”(Manual du Libraire et de L'Amateur des Livres)의 제5권 분류편에 사용된 것이다. 분류의 특징은 전체를 크게 5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에서 세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2)</sup>

- |                 |  |
|-----------------|--|
| I. 신학           | 1.성서 2.기도서 3.예배학 4.종교회의 5.교부 6.신학자<br>7.이단의 견해 8.유대교 9.동양종교 10.기타                      |
| II. 법학          | 1.일반법 2.자연법, 국제법 3.정치법 4.민법,형법 5.교회법   |
| III. 과학 및<br>예술 | 1.사전, 백과사전 2.철학 3.물리학, 화학 4.자연과학 5.의학<br>6.수학 7.조기성(Mnemonics) 8.미술 9.기계공예 10.체육,오락,게임 |
| IV. 순문학         | 1.서론 2.언어학 3.수사학 4.시학 5.산문소설 6.문헌학<br>7.대화 및 회화 8.서간 9.잡집(polygraphy) 10.전집            |
| V. 역사           | 1.서론 2.세계사 3.교회사 4.고대사 5.현대사   |

브뤼네의 분류법은 다른 프랑스분류법과 같은 5개의 주류로 배열되었는데, 전체에 약 11,000개의 세목이 있었다.<sup>53)</sup> 이와 같은 사실은 종래의 분류법 보다 분류항목을 많이 신설하고, 계층성이 더욱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목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도 도서분류에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학을 최초로 배열한 것도 프랑스분류법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1) 點澤修, 芦屋清, 앞의 글, 35.(브뤼네가 분류법을 고안한 년도는 1804년, 1809년, 1810년 등으로 문헌에 나타나 있으며 분류내용도 약간씩 다르다.)

52) 村島靖雄, 圖書分類概論(東京:藝文會, 1932), 35-37. (丸山昭二郎, 岡田靖, 澁谷嘉彦, 앞의 글, 25 제인용) 분류내용은 문헌마다 약간씩 다르다.(今まど子外, 앞의 글, 20참조)

53) Arthur Maltby, op. cit., 113.

그러므로 이 분류법은 프랑스의 서지학자들의 호평을 받아 많은 도서관에서 목록작성과 배가에 이용되었다. 따라서 그 후에 여러 서지의 편찬, 재고도서의 배열, 개인도서관의 분류 등 서지분류와 함께 서가분류에도 이용되어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파리의 성 주네비에브 공공도서관(Bibliothèque St. Genevieve in Paris), 대영박물관 도서관의 초기의 분류법, 미국 하버드대학 도서관, 필라델피아 도서관 등의 분류법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sup>54)</sup>

따라서 브뤼네의 분류법의 세목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서지배열과 함께 서적상과 개인의 장서배열에도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서가배열에도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5. 8 제퍼슨 분류법 (Thomas Jefferson, 1743-1826)

미국 제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은 1800년 창설되었던 미의회도서관이 1814년 독립전쟁으로 소실되자 그의 개인장서를 인계하였다. 그 때 그는 그의 장서를 배열한 분류표를 갖고 있었다.

제퍼슨은 베이콘의 학문분류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베이콘의 학문분류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참고한 것이다. 제퍼슨은 자신의 장서를 다랑베르가 수정한 베이콘의 학문분류법에 따라서 44부분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수입번호순으로 배열하였다.<sup>55)</sup> 1815년 그의 장서는 Catalogue of the Library of the United States라는 표제로 발간되었는데, 도서들은 44개의 주제 내에서 알파벳순서로 배열되었다.

제퍼슨분류는 그 후 1899년 푸트남(Herbert Putnam)이 관장이 되어 장서를 재조직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미의회도서관에서 사용되었으며,<sup>56)</sup> 버지니아대학의 장서조직과 윌리엄 앤드 메어리대학(College of William and Mary)의 재조직에 적용되었다.<sup>57)</sup>

따라서 베이콘의 학문분류는 다랑베르에 의하여 이용된 후 구라파와 미국의 서

54) 今まど子 外, 앞의 글, 21.: Arthur Maltby, 113.

55) 앞의 글, 23.

56) W. Howard Phillips, op. cit., 95.

57) Bohdan S. Wynar, Arlene Taylor Dowell and Jeanne Osborn,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6th ed.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1980), 395.

지분류 및 서가분류에 점차적으로 이용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 5. 9 미의회도서관 분류법 (Library of Congress)

미의회도서관은 1800년 설립되었다. 개관 당시의 장서는 964책과 지도 9점으로, 크기에 따라 배가 되었다. 1812년에는 장서 3,076책, 지도 53점이 있었으며, 그 당시 발간된 장서 목록은 18개의 주제별목록이었으며, 배가는 역시 크기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화재에 의하여 대부분의 장서가 소실된 후인 1815년에 미국 제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전 대통령의 장서를 구입하여 재건하였다. 분류표는 제퍼슨의 44 항목의 주제분야의 구분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1899년까지 이 분류표가 사용 되었으며, 그 해에 푸트남(Herbert Putnam)이 관장이 되면서, 신관 낙성을 계기로 분류표의 변경을 기도하였다.<sup>58)</sup>

푸트남은 기존의 DDC, EC는 의회도서관의 장서분류에 부적당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역사, 정치학, 사회학부문의 장서류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많은 장서구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분류표 작성을 시도 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의회도서관분류법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을 발간하게 되었다.

### 5. 10 혼 분류법( Thomas Hartwell Horne)

혼은 1825년 브뤼네의 영향을 받아 10부분으로 구성된 분류법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9)</sup>

- |                  |             |             |
|------------------|-------------|-------------|
| 1. 신학 및 종교 (1-4) | 2. 법학 (1-5) | 3. 철학 (1-5) |
| 4. 예술 및 무역 (1-4) | 5. 역사 (1-5) | 6. 문학 (1-5) |

혼이 제안한 이 분류표는 후에 대영박물관분류표(1836-1838)의 기초가 되어, 프랑스 분류법은 유럽 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에도 점차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넓혀간

58) W. Howard Phillips, op. cit., 95.

59) 點澤修, 戶屋清, 앞의 글, 36-37.

것을 알 수 있다.

#### 5. 11 대영박물관 도서관 분류법(British Museum Library)

1753년 영국정부는 법률을 정하여 대영박물관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842년 법<sup>60)</sup>에 의하여 다른 4개소 도서관과 함께 납본권을 얻어서 장서를 수집할 수 있는 권<sup>61)</sup>을 획득하였다.

1836-1838년까지 대영박물관 도서관은 혼이 제안한 분류표를 사용하였다.<sup>62)</sup>

##### 대영박물관 도서관 분류법(1836-1838)

1. 신학 (1-117) 2. 법학 (1-57) 3. 自然史 및 의학 (1-36) 4. 고고학 및 예술(1-17)
5. 철학 (1-62) 6. 역사 (1-46) 7. 지리 (1-40) 8. 전기 (1-22) 9. 문학 (1-101)
10. 언어학 (1-17)

대영박물관 도서관의 분류는 혼의 분류법 보다 주제항목이 증가했지만, 주제 배열은 혼의 분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5. 12 에드워즈 분류법 (Edward Edwards, 1812-1886)

에드워즈는 영국 공공도서관운동의 위대한 선구자로서 1850년 영국의 도서관법의 제정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1859년에 Memoirs of Libraries(2 책)를 발간하였는데, 그의 분류표는 특히 공공도서관에 적용하려는 의도로 편성되었다.<sup>63)</sup> 당시에는 고학이 진보함에 따라서 출판물이 급증하였고, 영국의 공공도서관령이 통과되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미국 도서관사업의 발달로 인하여 영국 도서관사업은 진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분류법의 경향은 더욱 상세하고 실용적이 되어 현대적 관념에 가깝게 되었다.

60) 앞의 글.

61) 앞의 글. 37.

1859년에 그의 분류표는 Outline of Proposed Scheme of Classification for a Town Library란 표제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2)</sup>

1. 신학 2. 철학 3. 역사 4. 과학 및 기술 5. 문학 및 작가

이와 같은 주류들은 약 500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sup>63)</sup>

이 분류표는 공공도서관을 위한 분류표로서 여러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특수한 성격과 요구에 기초를 두어 작성되었기 때문에 서가배열을 위한 분류표로서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다.

이 분류법은 던체스터 공공도서관(Manchester Public Library)을 시작으로 영국 각지에서의 공공도서관에서 채용하였다.

그러나 이 분류법은 기호가 서가배열에 부적당하였기 때문에 류(類)는 문자, 강(綱)은 아라비아 숫자, 목(目)은 -(대쉬)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수정을 한 것도 있는데,<sup>64)</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5)</sup>

- |                 |  |
|-----------------|--|
| A - 신학          | 1. 성서(-1 ~ -5) 2. 성서언어학(-1 ~ -6) 3. 신학자의 저작집<br>4. 교리 및 변증신학 5. 교리문답신학 6. 목회신학 및 권고신학<br>7. 신비신학 8. 예배, 의식, 전례 9. 유대교 10. 자연신학                               |
| B - 철학          | 1. 일반적 종합학 저작 2. 윤리학 3. 형이상학   |
| C - 역사          | 1. 역사연구 2. 세계사 및 전기 3. 고대사 및 전기 4. 중세사<br>5. 교회사 6. 근대서양사 7. 영국사 및 아일랜드 역사(-1 ~ -43)<br>8. 근대 서양 각국사(-1 ~ -12) 9. 아메리카 역사(-1 ~ -4)<br>10. 근대 아프리카역사 및 아시아 역사 |
| D - 정치학 및<br>상업 | 1. 정치학 및 행정 2. 헌법 3. 군주제(-1) 4. 상원 및 하원(-109)<br>5. 행정부(-1) 6. 법률일반 7. 영국연방법(-1 ~ -11)   |

62) 加藤宗厚, 앞의 글, 79.

63) 仙田政雄, 앞의 글, 37.

64) 加藤宗厚, 앞의 글.

65) 點澤修, 芦屋清, 앞의 글, 37.

8. 형법(-1 ~ -4) 9. 정치경제학-상업,인구 등(-1 ~ -33)
10. 영국국교 11. 공교육 12. 육군 및 해군
13. 외교정책, 대사 및 영사
14. 정치비평, 신문의 자유

- |                |   |
|----------------|---|
| E - 과학 및<br>기술 | 1. 일반-辭書, 학회, 협회보고 2. 물리학(-1 ~ -28)           |
|                | 3. 수학(-1 ~ -5) 4. 기계공학(-1 ~ -12) 5. 군사 및 군함기술 |
|                | 6. 의장 7. 書法 8. 음악 및 연극 9. 의학 10. 가정 및 오락      |
| F - 문학 및<br>작가 | 1. 문학사 2. 언어학(-1 ~ -12)                       |
|                | 3. 시 및 소설, 합집 및 역사(-1 ~ 기술 -12)               |
|                | 4. 웅변술 5. 수필, 6. 서간집 7. 서지 및 각국 문학사           |
|                | 8. 다수작가 (-1 ~ -4)                             |

에드워즈의 분류표는 서명에서도 나타나듯이 도서관의 서가배열을 위하여 고안한 것이기 때문에 분류사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미국의 해리스 보다 먼저 도서관의 서가배열을 위한 분류표를 발표하였다.

### 5. 13 해리스 분류법 (William Torey Harris, 1835-1909)

세인트 루이스 공립학교 도서관장이었던 해리스는 1870년 자관(自館)의 도서관정리를 목적으로 분류법을 고안하였다.

구미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자료의 배가방법은 1850년 경까지, 고정식배가법이 채용되어, 자료분류표는 목록작성을 할 때 서지분류법으로서 적용하는 것인 만큼, 자료의 서가상의 위치는 수입순이나 크기순이었다. 그러나 브뤼네의 분류표를 시작으로 하여 서지분류표가 발표된 이래, 이것을 도서관자료와 결부시키기 위하여 이동식배가법이 도서관계자 사이에 관심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도서관자료 자체만을 분류배가하는것에 의해서 이용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점이 발견되어, 도서관자료에 분류기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분류기호가 있는 분류표의 작성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 최초의 것이 1870년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공립학교 도서관장인 해리스가 발표한 분류표이다. 그런데 앞서 고찰 한 바와 같이 도서관의 서가배열을 위한 분류



표는 서명에서 나타나듯이 영국의 에드워즈가 해리스에 앞서 도서분류표를 발표 하였다. 그의 분류표는 서가 상의 도서를 주제순으로 배열하기 위하여 4부분 100구분을 숫자로 표시하고, 각 류의 세목은 알파벳 소문자 1자(a-g)를 부가하였으며, 또한 동일류 내에서는 저자 및 서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였다.

해리스 분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66)</sup>

		철학	2-5
		신학	6-16
1. 과학	17	사회과학 및 정치학	법학 18-25
			정치학 26-28
			사회과학 29-31
		언어학 32-34	
	35	자연과학 및 유용기술	수학 36-40
			물리학 41-45
		박물학 46-51	
		유용기술 59-63	
64. 예술		미술 65	
		시학 66-68	
		산문소설 69-70	
		문학잡저 71-78	
79. 역사		지리 및 기행 80-87	
		인문역사(Civil history) 88-96	
		전기 97	
98. 부록		인쇄물 98	
		백과전서 99	
		연속간행물 100	

[세구분표]

예: 65 미술, 65a 건축, 65b 조각

해리스 분류법은 베이컨의 학문분류에 기초를 둔 逆 베이컨 식으로서 베이컨의

66) 앞의 글, 39-40.

학문분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분류법은 작성된 시대에 있어서 지식의 분류에 근거하고 있지만, 해리스 처럼 그 전거를 명시한 것은 적다.

그리고 분류항목을 세분하기 위하여 알파벳을 사용하여 계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계층적 사상은 후에 십진분류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해리스 분류법은 그 후 서가분류표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듀이(Melvil Dewey), 커터(Charles Ammi Cutter), 기타 현대의 여러 분류법에 직접,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 6. 결 론

이상에서 서양의 분류법 중에서 고대로부터 1870년에 고안한 해리스 분류법까지 살펴 보았다.

고대와 중세의 분류는 주로 서지자료의 분류를 위한 서지분류시대였기 때문에 서지자료의 배열이 중심과제였다.

그러나 카롤링가 시대의 목록은 서지목록이 아니라 도서를 서가에 배열한 서가 목록의 특색을 띄고 있었다.

계몽기에 들어와서 여러 해동안 전개 되어 온 분류, 목록상의 여러 가지 경향이 성숙에 이르렀다. 어떤 도서관학파에서는 분류론에 대단한 열의를 갖고 서가상의 도서배열은 분류목록의 순서와 일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계몽기에 있어서도 일부 도서관 사서들은 공간을 고려하고, 물질적인 편의를 도모하여 도서 배가방법을 결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7)</sup> 따라서 서지학자나 사서들은 서지배열과 도서배열을 위하여 훌륭한 분류법을 고안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수입순이나 크기에 의하여 도서를 배가하였다.

1810년에 고안된 브뤼네의 분류표를 시작으로 하여 서지분류표가 발표된 이래 도서관에서는 이동식배가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브뤼네의 분류표는 많은 세목이 있었기 때문에 서지분류와 함께 서가분류에도 이용되었다. 그리고 그 후의 프랑스, 영국, 미국의 도서관 분류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1859년에 발표된 에드워즈의 분류법은 공공도서관에 적용하려는 의도로 작성되

67) Alfred Hessel, op. cit., 109.

있기 때문에 서지분류와 서가분류의 일원화를 시도한 분류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1870년 미국의 해리스는 서가배열을 위하여 분류기호가 있는 분류표를 작성하였는데, 주제가 4부분 100구분으로 구성되어, 십진법의 기초를 이룬 현대적인 분류법의 개념을 최초로 내포한 분류법으로서 분류사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명옥. 자료분류법 (서울: 구미무역 출판부, 1986)
- 金世翊. 圖書-印刷-圖書館史 (서울: 종로서적, 1982)
- 金正昭. 資料分類論 (大邱: 啓明大學校 出版部, 1983)
- 鄭駙謨. 文獻分類論 (서울: 九美貿易 出版部, 1991)
- 鄭駙謨, 吳東根. 圖書館文化史 (서울: 九美貿易 出版部, 1991)
- 최성진. 도서관학 통론, 증보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8)
- 加藤宗厚. 圖書分類法要說, 改訂增補版 (東京: 理想社, 1962)
- 今まど子 外. 資料分類法 及び演習 (東京: 樹村房, 1986)
- もり きよし. 資料分類法概論, 改訂版 (東京: 理想社, 1983)
- 木原通夫, 志保田務, 高鷺忠美. 資料組織法, 補訂第3版 (東京: 第一法規, 1985)
- 仙田正雄. 圖書分類と 圖書記號 (東京: 蘭書房, 1956)
- 點澤修, 芦屋清. 資料分類法 (東京: 東京書籍, 1984)
- 眞田茂, 西조惠子. 資料分類法 (東京: 教育出版, 1979)
- 丸山昭二郎, 岡田靖, 澁谷嘉彦. 主題組織法概論: 情報社會の分類 (東京: 紀伊 國屋, 1986)
- Herdman, Margaret M. *Classification: an Introductory Manual*, 2nd ed. (Chicago: ALA, 1947)
- Hessel, Alfred. 西洋圖書館史, 李春熙 譯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83)
- Maltby, Arthur.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5th ed. (London: Andre Deutsch, 1975)
- Phillips, W.Howard. *A Primer of Book Classification*, 5th ed. (Lond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 1961)
- Wynar, Bohdan S., Dowell, Arlene Taylor and Osborn, Jeanne.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6th ed.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1980)

## ABSTRACT

## The History of Library Classification before Dewey in Western library

Myung-Ok Kim\*

This study is on the history of classification in Western library from ancient to Harris(1870), before Dewey. It looks into the classification systems of librarians, bibliographers, booksellers and libraries of that time.

One of the earliest was the classification of the clay tablets in the Assyrian library of Assurbanipal. But the earliest recorded system in the papyrus is that which Callimachus(B.C. 310-240) devised for the library at Alexandria.

In the medieval, the monastery libraries used many classifications, but their libraries were very small. Gesner, Naude, Brunet, Jefferson, Edwards, Harris etc. tried to make a good classification for bibliographies and libraries. Especially Brunet made the scheme based on the French system, and it used on bibliographical classification and shelf classification in the many libraries.

In 1859, Edwards made the classification scheme for the public library in the Great Britain.

In 1870, Harris made the famous inverted Baconian classification and it strongly influenced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ong-Eui Women's Junior College.